

충렬사(忠烈祠)

선무원종공신(宣武原從功臣) 허일(許鎰)과 그의 아들 곤(坤) 및 재종제 경(鏡)을 배향한 사우이다. 1974년 3월 순천향교에서 열읍에 발한 통문에 의하면 1868년(고종5)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구사(舊祠)가 훼손된 뒤 복설하지 못했던 것을 1972년 문화공보부의 지원에 따라 1974년에 비로소 순천시 조례동 150번지에 복건하게 되었다고 한다. 1984년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6호로 지정된 이 사우는 배향인물에 있어서 육충사(六忠祠 : 순천시 황전면 월산리 소재, 양천허씨 문중사우)와도 직접 관련되어 있다.

허일(1549~1593)의 자는 여중(汝重), 호는 일심재(一心齋)로서 본관은 양천(陽川)이다. 선조때 무과에 급제한 후 선진관·훈련원 주부(主簿) 등을 거쳐 경상도 용천현감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을 당해 이충무공 막하게 종군하였다. 1593년 6월 김천일·최경희등 호남의병장들과 더불어 진주성을 사수하다가 성의 함락과 함께 순절, 선무원종공신 1등훈에 책록됨과 동시에 통정대부 형조참의에 추증된 뒤 숙종때 다시 호조참판에 추증되었다. 허곤의 자는 성대(聖大), 호는 재헌(載軒)으로 일심재의 셋째 아들이다. 임진왜란시 부친을 따라 제2차 진주성 전투에 참전했다가 부친이 순절하자 그 원수값을 것을 맹세한 뒤 이충무공 막하의 해전에 참전, 역전 끝에 순절하니 선무원종공신 2등훈과 함께 군자감 판관(判官)에 추증되었다.

허경의 자는 여명(汝明), 호는 장암(莊菴)으로 승평사은(昇平四隱) 엄(淹)의 아들이며 일심재의 재종제이다. 선조때 무과에 급제한 후 여러관직을 거쳐 장연현감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을 맞아 집안의 아우들과 함께 이충무공 막하에 종군한 뒤 제2차 진주성싸움에 참전, 이 전투에서 순절하였다. 사후에 선무원종 3등훈 및 익사원종공신(翼社原從功臣)에 책록되었다.